

(봉축 영상메세지)

청정한 신심과 지극한 바람을 하나로 모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마음에는 평화가 삶에는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에 행복과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리석음과 탐욕의 세계에 지혜와 나눔으로, 대립과 갈등의 현장에는 화해와 공존으로, 차별과 배타가 아닌 존중과 상생의 손길로 오십니다.

살아있는 모두는 서로를 의지하는 동행자입니다. 대립과 경쟁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웃이요, 서로 다른 한몸으로 평화와 행복으로 향하는 동행자입니다

시민의 바른 참여를 실현하는 민주사회는 자비의 구현이며,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는 다름아닌 정토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이해관계와 대립을 내려놓으면 함께 가는 길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과 평화의 동행자입니다. 우주의 조화로운 기운을 받아 만물이 생동하는 환희로운 시절을 봉축으로 맞이합시다.

(합장)